

## 중국 산업환경 조사

-오영석 연구위원(산업경제연구실) 외

### 1. 출장 개요

개요

- 출장자 : 오영석 연구위원, 조철 연구위원, 서동혁 연구위원
- 출장지역 : 중국 북경, 천진, 연태
- 기간 : 2010.5. 11 ~5.15
- 방문 목적 : 중국 기관 및 기업체 방문을 통해 급변하는 중국의 산업환경과 한·중 관계 여건의 파악 및 자료수집

방문기관 및 기업 및 면담자

일자	방문 대상	면담자
5/11 (화)	인천 출발, 북경 도착	
	공업경제연구소	-金碚 소장, 丁易 과연부처장
5/12 (수)	북경현대공장	-박근수 본부장 등
	롯데포장공장	-엄임용 총경리, 정병호 부장 등
	북경경제기술개발구	-Zhao Xin Xin 부주임 -Shen Tianning 부주임
	북경과전 주요 연구소 및 기관장 초청 간담회	한국은행(김영현대표), KIEP(양평섭소장), 무역협회(권도하지부장), KOTRA(박한진부관장),

		중국한국상회(최훈사무국장), 포스코경영연구소(정철호소장),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(홍성범소장), 삼성경제연구원(유진석수석), LG경제연구소(이철용 수석대표), 농촌경제연구소(정정길소장)
5/13 (목)	북경--> 천진 이동	
	천진경제기술개발구	-김향화 투자촉진2국장, 한영일 과장
	삼성전자 천진 TV/모니터 공장	-김성식 법인장 -박태규 상무, 조정희 부장 등
	삼성전자 천진 휴대폰 공장	-김혁철 총경리 -임광택 부장
	북경 --> 연태 이동	
5/14 (금)	두산인프라코아	-정해익 총경리, 한철수 부총경리, 안종선 상무 등
	대우조선해양 산동공장	-최성락 법인장, 전경중 이사
	연태대경철재(주)	-이주석 대표 -이호철 부총경리, 황중률 부총경리
5/15 (토)	연태 --> 인천 귀국	

## 2. 중국산업 관련 주요 이슈

### □ 중국의 산업정책 방향

- 첨단산업 육성으로 전환, 저부가가치 분야 과잉생산 구조조정 단행
  - 기회요인 : 내수시장 확대, 국민 생활수준 향상
  - 위협요인 : 기술격차 축소, 경쟁심화

<최근 중국 산업정책의 주요골격과 국내영향 가능성>

	내수소비 확대	구조조정	전략산업 육성
정책 핵심	-가전하향 -이구환신	-6대산업 과잉생산을 억제	-10대산업 진흥계획 -7대 전략 신흥산업
주요 목적	-내수경기 부양	-공급과잉 분야 해소	-경제성장의 양적 → 질적 전환
대상 산업	가전, 자동차	-6대:철강, 시멘트, 평면유리, 석탄화공, 폴리실리콘, 풍력 설비 -조선, 석화, 철강, 자동차	※
한국의 영향 (기회)	-부품산업 수출확대 -휴대폰, TV, 자동차 수출		-첨단 기술분야(특히 LCD, 자동차)에 기회 -전략적 제휴 가능성
(문제점)	-국내 백색가전은 유통망 열세, 인지도 취약	-국내 철강,석화,조선의 수출 시장 축소 우려	-중장기적 경쟁 심화

※ 2010년 중국이 전략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7대 신흥산업을 선정

- 신에너지, 신소재, 정보산업, 의약산업, 생물종자분야, 친환경 녹색산업, 전기자동차 등

※ 중국은 10대산업 진흥계획 추진중(2009. 6. 업종별 시행세칙 수립 발표)

- 소재(철강, 석유화학, 비철금속), 소비재(섬유, 경공업), 기계(자동차, 조선, 일반기계), 하이테크(전자정보), 물류

## □ 대중국 투자 한국기업의 성공요인과 애로요인

### < 성공 요인 >

#### ○ 삼성전자의 사례

- 한중 수교 이전부터 중국에 진출하여 경험이 오래 되었고,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토대로 중국진출이 이루어졌음.
- 중국 정부와의 신뢰성 유지를 토대로 밀착관계를 유지하고 관련 정보를 입수하였음. 예컨대 사스전염병 시 타기업들은 철수의 움직임을 보이거나 소극적 사업자세를 보인 반면, 삼성전자는 변함없는 사업을 지속하여 중국 및 중국인들로부터 신뢰감을 유지함.

- 하나의 사업을 공고히 하고 여타 사업으로 다각화하여 안정적인 성장전략을 모색하였음.

○ 두산 인프라 코어의 사례

- 초기 시장진출자로서의 이점을 얻었음.
- 공격적 시장진입전략을 추구함.
- 철저한 현지화를 모색하였음.
- 경쟁사와의 철저한 차별화를 모색하였음.

○ 대우해양 조선의 사례

- 시설투자 측면에서, 저가 토지비 등으로 인해 한국에 투자하는 것보다 고정비가 2/3 수준으로 저렴하며, 더욱이 강제가격이 한국보다 저렴
- 블록공장 건설을 11개월 만에 완료하는 등 건설기간이 매우 짧았음.
- 인건비 측면에서 중국인의 인건비는 생산성 격차를 감안해도 한국에 비해 1/3-1/2수준에 불과
- 품질관리는 철저히 하고, 기초노동질서를 확립 : 예로서, 공장 및 사업장 내에서는 철저한 금연원칙을 고수

< 애로요인 >

○ 낮은 노동생산성

○ 빠르게 상승하는 인건비

○ 노사문제 및 노동력 수급문제

- 점차 요구되는 지식수준이 높아지면서 노동력의 수급문제가 발생하고, 최근에는 노사문제가 가시화되고 있음.
- 평생고용제도

○ 관세 및 조세법률의 애매성

- 관세법률이 애매모호함. : 즉 품목마다 관세율이 매우 복잡하고, 중국 정부의 실수로 관세를 잘못 부과하는 경우에도 1년전 관세까지 고급적용하는 사례가 있음.

-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수익률이 업계 평균수익률보다 낮은 경우 이윤의 일부를 본국으로 송환한 것으로 간주하여 추가 세금을 징수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함.
- 중국진출 한국기업에 큰 도움을 주어 온 '조선족'이 사라지고 있음.
  - 중국어와 한국말을 동시에 구사하는 조선족은 중국정부, 중국기업, 중국인의 접촉시 한국기업에 큰 영향을 준 숨은 공로자인데, 최근 조선족 공동체가 사라지고 있음.
  - '조선족의 정체성'을 유지가 한국기업에 도움이 되므로, 한국 정부에서는 조선족 집단거주지가 명실상부 유지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함.

## □ 중국의 인건비에 대한 평가

- 중국의 인건비(1인당 월평균 임금) 사례
  - 롯데 포장공사 : 복리후생비 포함하여 1인당 임금은 50만원(한화)이고 매년 11%씩 상승하고 있는데, 다른 업종에 비해서 저렴한 편
  - 천진 경제기술개발구 : 사무직은 대졸 기준으로 2,000위안이고, 천진시의 최저임금은 910위안임.
  - 대우 해양조선 : 1인당 임금은 약 3,000위안(한화 약 50만원)임.
  - 연태의 섬유기업 : 1인당 임금(5대보험 포함)은 약 100만원
- 중국 인건비에 대한 평가의 양극화
  - 섬유기업 등 노동집약적 경공업 : 인건비가 상승하고 있어 예컨대 연태의 한국기업 600-700개가 철수하고, 베트남 등으로 이전하고 있어 중국 내 경공업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모두 위험함 : 즉, 인건비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모의 경제를 이룬 중국 토착기업(어떤 기업은 종업원이 80,000명에 달함)에 비해 한국의 기업은 경쟁력을 상실함.

- 조선, 전자 등 중화학공업 : 인프라, 노동의 질을 감안하면 중국은 인건비 여건이 아직 세계에서 가장 양호한 것으로 평가함.

#### □ 중국 소득계층에 따른 마켓 타겟 전략

- 중국인의 소득수준을 1부터 10까지 10분위로 구분할 때, 삼성전자는 5이상의 소득 계층을 타겟으로 삼고 있음. 5이하의 소득계층을 타겟으로 하는 경우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평가함.

- 10에 가까운 고소득계층의 시장은 구미, 일본 기업이 점유하고 있음.

- 예컨대, TV의 경우 중국 토착기업이 약진하여 중국내 시장의 75%를 점유하고 있는 있는데, 이러한 증거를 겨냥해서는 경쟁력을 갖출 수 없어 삼성전자는 중급이상의 브랜드 이미지를 토대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음.

- 삼성전자는 향후 고소득계층의 시장침투를 점차 강화하는 경영전략을 강구할 계획임.

- 중국의 고소득계층은 %로 계산하면 매우 적으나 절대 숫자로는 엄청난 것이므로 중국시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%의 개념은 부적합 : 한국인보다 잘사는 중국인은 1억명 이상인 것으로 평가함.

#### □ 중국의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의 투자유치 정책과 여건

- 중국의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는 총 58개이며, 이중 천진경제기술개발구가 가장 큼.

- 중국의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에의 투자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지방급 경제기술개발구에의 투자보다 유리함.

- 관련 정책을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에서 수립하므로 정책의 안정성과 연속성이 보장될 수 있음.

- 국가급이든 지방급이든 투자기업에 주는 특별한 혜택은 첨단산업 투자시

의 조세혜택외에는 모두 없어졌으나, 정부의 서비스 및 지방정부의 재정 기여도 면에서 국가급이 여전히 유리할 수 있음.

·참고로,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와 지방급 경제기술개발구 모두 첨단산업에의 투자시 기업소득세를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것 외에는 모든 혜택이 사라짐(일반기업의 조세는 25%인 반면, 첨단산업의 투자시 조세는 15%).

-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에는 에너지다소비업종, 환경유발 산업은 투자가 금지됨,, 이는 국가산업정책의 산업지도목록상 '권장산업'과 금지산업'의 구분에 근거하는 것임.
-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에는 1억달러 이하의 투자는 금지됨.

#### □ 한국기업의 바람직한 중국 내수시장 진출전략

##### ○ 점진적 시장확대

- 경쟁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1개 성을 전략거점으로 우선 진출한후, 주변지역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전략이 매우 중요

##### ○ 중국진출은 대기업 중심으로 성공 가능

- 중소기업 단독의 진출은 실패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, 중소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째, 독자적인 기술우위 보유, 둘째, 대기업과의 동반진출 등 두 가지 요소를 함께 갖추어야 할 것임.

##### ○ 경공업 분야의 진출은 매우 위험

- 이미 중국기업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여 한국을 위협
  - 저부가가치 분야는 기술력, 생산비용, 판매 등 모든 면에서 중국기업과 경쟁 불가능
-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이 경공업 분야에 진출하는 것은 현지 유통망, 상관행, 거래처 확보 등에서 절대적인 비교우위를 지닌 현지기업과 경쟁하는 것은 절대 불리

#### □ 한중 FTA에 대한 입장

- 업종과 무관하게 대체로 FTA가 체결되면 좋다는 입장이 우세
  - 중국 시장의 선점, 정책의 토종기업 우대 등을 고려시, 가급적 조속한 FTA 체결이 바람직
  - 경쟁 격화, 한국으로부터의 부품조달 등을 감안
  
- 그러나 현재처럼 FTA가 체결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어도 특별한 불이익은 없다는 입장도 다수
  - 이미 중국에 생산거점을 확보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FTA가 체결되어도 현재보다 특별한 추가적 이익을 기대하지는 않는 상태

### 3. 기관 · 기업별 방문 내용

- 생략